

민요의 나라
신화의 섬에
흔저 읊서

제주일노래

악보집

제주의 삶을 품은 노래가 있습니다.
바당발을 훑으러 가는 배 위에서,
수눌며 검질 매던 여름날 흔히 부르던 노래.
어멍의 꿈을 닮은 와랑차랑 노래들....
잊히어 가던 그 소리가 담을 넘어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발간사

제주 일노래 악보집을 펴내며

고영림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장 / 제주일노래상설공연집행위원장

제주의 일노래는 일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소리 내어 읽어봅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하지 못했고 가족의 삶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힘들고 거친 노동과 함께 해왔던 이 음악에 가만히 귀 기울여보면 독려, 위로, 즐거움, 한탄 등 여러 감정이 전해 옵니다. 작곡가와 작사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구전 음악, 일노래는 담백한 선율과 솔직한 사설로 우리에게 공감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네 번 무대에 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제주 일노래 상설공연>을 스무 번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이 공연을 통해 제주의 일노래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도한 것이 <제주 일노래 악보집> 제작입니다. 관객이 공연장에서 감상한 일노래를 음원과 악보를 통해 다시 접한다면 제주의 일노래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악보집에는 7개 곡이 실려 있고 음원은 <제주 일노래 상설공연> 홈페이지(www.jeusong.or.kr)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검질매는소리', '망건짜는소리', '도깨질소리', '방에짙는소리', '멜후리는소리'는 각 1개 음원으로, '출비는소리'는 2개의 다른 음원으로 비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채보자와의 논의를 거쳐서 올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악보집으로 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제주 일노래의 음원을 들으면서 스스로 불러볼 수 있도록 채보와 편보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전문가들을 위한 악보는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제주 일노래의 음원과 악보가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능력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채보에 문효진 작곡가, 감수에 강효주 교수, 해설에 이성훈 박사 그리고 음원 녹음을 위해 노래한 제주농요보존회와 이어도민속예술단, 이분들과 함께 만들어 낸 악보집입니다.

첫걸음은 늘 조심스럽기 마련이지만 용기 내어 추진했습니다. 조언과 비판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제주 일노래 상설공연>이 <제주 일노래 악보집>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주의 일노래가 우리 일상의 동반자가 되고 지속가능한 전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추천사

제주인의 삶의 소리, '일노래' 곳곳에서 울려 퍼지길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먼저 <제주 일노래 악보집> 출간을 마음 깊이 축하드립니다.

제주 사람들은 예로부터 밭일, 들일, 바다일, 집안일 등 힘든 일을 소리로서 이겨왔습니다. 일찍이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이 제주의 민요를 수집하고 채록하여 낸 자료집과 연구물 등을 통하여 제주 일노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일노래는 제주 사람들의 삶이요 흥이요 미학입니다. “어긴 여랑 상사대로구나”하며 여름 띄약별 아래서 ‘검질매는’ 일을 수월하게 해치웠고, 힘든 밭일과 들일 끝에 가족들의 먹을거리를 챙기기 위하여 밤이 이슬하도록 ‘그렛조록(맷손)’을 돌리며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부른 해학이 넘치는 노랫말 속에는 가족들에 대한 진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제주의 힘든 노동을 노래로 승화시킨 우리네 할머니들은 진정한 소리꾼이요, 문학가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악보집에 실린 ‘검질매는소리’, ‘망건짜는소리’, ‘도깨질소리’, ‘방에짙는소리’, ‘멜후리는소리’, ‘출비는소리’의 노랫말 속에 잘 녹아 있습니다. 힘든 일을 서로 힘 합쳐 소리로 북돋우고 흥으로 승화시킨 우리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건강한 삶과 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공동체의 미덕입니다.

제주는 ‘소리의 섬’입니다. 제주에서는 1400여 수의 일노래가 전합니다. 그 숫자도 숫자이지만 일노래가 지닌 음악성과 문학성은 제주민요의 품격을 더해 줍니다. 게다가 제주어 노랫말은 제주와 제주 문화의 가치를 더욱 높여 주고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이 누대로 전해온 일노래는 제주인의 혼(魂)이요 제주 예술의 맥박입니다. 일터에서 사라진 제주의 소리를 무대에서라도 자주 불릴 수 있도록 이번에 발간한 <제주 일노래 악보집>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힘 모양 제주의 삶과 문화가 깃든 ‘일노래 공동체’를 만들어 보게마십시오. 응원하쿠다.



제주일노래

민요의 나라
신화의 섬에 흔저음서

악보집

제주일노래 악보

검질매는소리(김매는 소리)

망건짜는소리

도깨질소리(마당질소리)

방에짙는소리(방아짙는소리)

멜후리는소리(멀치후리는소리)

출비는소리(꿀베는소리)

출비는소리(꿀베는소리)



검질매는소리(김매는소리)

문효진 채보, 편보
강효주 감수

♩ = 100 세마치장단



(후렴)



8.아 무 리 - 허 - 여 - 도 - - - 허 고 야 - - - - 말 - 일

(후렴)



9.허 당 - - - - 말 - - - 민 - - - - 놈 이 - - - 나 웃 - 나

(후렴)



10.모 다 - - - - 들 - - - - 서 - - - - 모 다 - - - - 덜 - 들 - 서

(후렴)



11.제 꾀 - - - - 어 른 - 들 - - - - 모 다 - - - - 덜 - 들 - 서

(후렴)



12.일 락 - - - - 서 산 - 에 - - - - 해 떨 어 지 기 전 - 에

(후렴)



양 곳 - - - - 잡 - - - - 양 모 강 - - - - 덜 - - - - 나 글 읊 서

검질매는소리

(후렴) 어기여라 상사대로다

1. 검질 짓고 굴 넓은 밭디 (후렴)
2. 소리로나 우경 가게 (후렴)
3. 앞멍에랑 들어나 오고 (후렴)
4. 뒷멍에랑 나고나 나가라 (후렴)
5. 한 소리에 두 줌 반씩 (후렴)
6. 두 소리에 석 줌 반씩 (후렴)
7. 굽은쇠 골갱이로 박박 매고 나가자 (후렴)
8. 아무리 하여도 허고야 말일 (후렴)
9. 허당 말민 놈이나 웃나 (후렴)
10. 모다 듽서 모다덜 듽서 (후렴)
11. 제꾼 어른들 모다덜 듽서 (후렴)
12.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기 전에
양긋 잡앙 모깁덜 나글읍서 (후렴)

김매는소리

(후렴) 어기여라 상사대로다

1. 김 깃고 골 넓은 밭에 (후렴)
2. 소리로나 힘써서 가자 (후렴)
3. 앞 밭머리는 들어나 오고 (후렴)
4. 뒷 밭머리는 나고나 나가라 (후렴)
5. 한 소리에 두 줌 반씩 (후렴)
6. 두 소리에 석 줌 반씩 (후렴)
7. 굽은 쇠 호미로 박박 매고 나가자 (후렴)
8. 아무리 하여도 하고야 말일 (후렴)
9. 하다가 말면 놈이나 웃나 (후렴)
10. 모여 드십시오 모여들 드십시오 (후렴)
11. 계꾼 어른들 모여들 드십시오 (후렴)
12.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기 전에
양끝 잡아서 마쳐서들 나갑시다 (후렴)

검질매는소리(김매는소리)

‘검질매는소리’는 밭에서 김을 매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검질매는소리’는 으레 ‘밭매는소리’를 가리킨다. 지역, 창자, 구연 상황, 노동 기능 등에 따라 종류도 가락도 여럿이다. ‘밭매는노래’, ‘사데’, ‘사디’, ‘아웨기’, ‘홍애기’, ‘상사소리’, ‘더럼소리’, ‘더럼마소리’, ‘담벌소리’, ‘담불소리’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부르는 노래는 ‘사데소리’이다.

김매기는 대개 여러 명의 부녀자들이 한 줄로 줄을 맞추어 앉아 김을 맨다. 한여름 땀약볕 아래서 김매는 일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자연스럽게 소리판이 형성되었다. 밭매기는 수눌음에 의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다양한 ‘검질매는소리’가 발달하였다. ‘사데소리’는 제주도의 전 지역에서 광범하게 불린다.

밭매기를 시작할 때는 주로 느리고 유장하고 느리게 부르는 ‘진사데’를 부르다가 김매기를 마감할 무렵이 되면 일손을 재촉하기 위해 흥겹고 빠르게 부르는 ‘짜른사데’를 부른다.

사설 내용은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는 경우는 드물고 밭매는 노동 실태가 주를 이룬다. 가창 방식은 혼자 부르기(獨唱)도 하지만 메기고받아 부르기(先後唱) 방식으로 부른다.

이 사설은 밭매기를 독려하는 하는 내용이다. 김을 매는 일은 힘든 노동이지만 노래를 부르며 위안을 삼고 힘을 써서 해가 지기 전에 일심협력하여 밭매기를 마치자는 것이다.

망건짜는소리

문효진 채보·편보
강효주 감수

♩ = 90 세마치장단

(후렴)

이 여 — 이 여 — — — — 이 — 여 도 — 흥 — — 라

이 — — 년 망 — — 건 — — 못 아 나 지 라

1. 흥 — 돌 — 죽 장 — 시 — 백 인 망 — — 건
2.느 — 네 — 각 시 — 애 — 기 — 업 — — 언
3.성 — 님 — 성 님 — 스 — 춘 — 성 — — 님
4.우 — 력 — ㄱ 틈 — 시 — 아 지 성 방 — — 에
5.못 — 살 — 커 라 라 못 — 살 커 라 — — 라
6.한 — 삼 — 모 시 — 열 — 두 폭 치 — — 마

1.돌 — — 막 돌 — — 막 못 아 나 지 라
2.한 — — 질 러 — — 레 돌 — 암 서 라
3.시 — — 집 살 이 — 가 어 평 험 데 가
4.메 — — 옹 이 ㄱ — — 틈 시 — 누 이 에
5.나 — — 요 시 집 살 이 못 살 커 라 라
6.살 — — 레 발 — — 에 걸 — 어 둠 서



1. 양 지 — 박 박 — — 엮 — — 은 놈 — — 아
 2. 어 느 — 만 큼 — — 돌 — — 암 십 데 — — 가
 3. 곤 도 — 말 고 — — 이 — — 르 도 말 — — 라
 4. 메 용 이 ㄹ ㄷ ㄴ — — 시 — — 누 이 말 년 — — 에
 5. 우 리 — 어 ㄷ ㄴ — — 망 — — 근 — — 풀 — — 안
 6. 혀 여 준 치 — — 마 오 — — 명 가 — — 명



1. 밥 — — 상 받 — — 양 타 령 을 말 라
 2. 감 — — 태 동 — — 산 돌 암 — — 서 라
 3. 무 — — 신 말 — — 을 골 암 — — 시 니
 4. 물 — — 꾸 령 말 ㄹ ㄷ ㄴ — — 른 출 서 님 에
 5. 시 — — 집 가 — — 렌 출 서 주 난
 6. 눈 — — 물 씨 — — 난 다 썩 으 서 라

망건짜는소리

(후렴) 이어 이어 이어도 허라

이년 망건 못어나지라

1. 혼 돌 죽장 시백인 망건 돌막돌막 못어나지라
양지 박박 얽은 놈아 밥상 반양 타령을 말라 (후렴)
2. 느네 각시 애기 업언 한질러레 돌암서라
어느 만큼 돌암십데가 감태동산 돌암서라 (후렴)
3. 성님 성님 스촌 성님 시집살이가 어떻헛데가
곤도 말고 이르도 말라 무신 말을 곱암시니 (후렴)
4. 우력 ㄱ튼 시아지방에 메옹이 ㄱ튼 시누이에
메옹이 ㄱ튼 시누이년에 물꾸력 ㄱ튼 서방님에 (후렴)
5. 못살컬라라 못살커라라 나 요 시집살이 못살커라라
우리 어멍 망근 풀안 시집가렌 출려주난 (후렴)
6. 한삼모시 열두폭치마 살레 발에 걸어둬서
허여준 치마 오멍가멍 눈물 씨난 다 썩엄서라(후렴)

망건짜는소리

(후렴) 이어 이어 이어도 하라

이년 망건 맺어져라

1. 한 달 쪽 때맞춘 망건 돌막돌막 맺어져라
양지 박박 얽은 놈아 밥상 받아서 타령을 말라 (후렴)
2. 너의 각시 야기 업어서 한길로 닫고 있더라
어느 만큼 닫고 있습디까 감태동산 닫고 있더라 (후렴)
3.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가 어떻습디까
말하지도 말고 이르지도 말라 무슨 말을 말하고 있니 (후렴)
4. 우력 같은 시아주버니에 고생놀래기 같은 시누이에
두드려고둥 같은 시누이년에 문어 같은 서방님에 (후렴)
5. 못살겠더라 못살겠더라 내 요 시집살이 못살겠더라
우리 어머니 망건 팔아서 시집가라고 차려주니 (후렴)
6. 한삼모시 열두 폭 치마 찬장 발에 걸어두고서
해준 치마 오며가면 눈물 쓰니까 다 썩고 있더라 (후렴)

망건짜는소리

‘망건짜는소리’는 말총으로 엮어 만든 머리띠의 일종인 망건을 짜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망건노래’, ‘맹긴[망근]뒹는소리’, ‘맹긴[망근]죵는소리’라고도 한다. ‘망건짜는소리’는 주로 삼양, 조천, 함덕 등 제주시 동부 해안 마을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망건은 상투를 튼 사람이 머리카락을 걷어 올려 흘러내려 오지 않도록 머리에 두르는 그물 모양의 물건으로 보통 말총, 곱소리 또는 머리카락으로 만든다. 조선시대부터 1950년대까지 제주시를 중심으로 조천읍, 구좌읍 일대에 마을마다 망건청을 마련해놓고 부녀자들이 망건을 짜는 일이 성행했었다. 조천에서는 망건을, 삼양에서는 양태를, 신촌에서는 탕건을, 도련에서는 갓 모자를 많이 짰다.

사설 내용은 망건을 짜는 작업 실태와 개인적 서정이 주를 이룬다. 망건 짜는 일은 혼자 하지만, 가창 방식은 주로 혼자 부르기(獨唱) 방식으로 부르지만 메기고받아 부르기(先後唱)나 주고받아 부르기(交換唱) 방식으로도 부른다.

이 사설은 시집살이에서 부딪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남편과 시아주버니, 시누이에 대한 미움으로 노래하고 있다. 남편, 시아주버니, 시누이까지 며느리를 학대하던 시집살이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시죽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시아주버니를 ‘우력’에, 시누이를 ‘고생놀래기’와 ‘두드럭고둥’에 남편을 ‘문어’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시댁의 학대에 저항하지 못했지만 가슴 속에 품었던 시집살이의 한을 노래로 부름으로써 자기 위안을 삼고 있으며, 시집살이에서 쌓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도깨질소리(마당질소리)

문효진 채보, 편보
강효주 감수

♩ = 125

(후렴)

어 야 - 도 하 야 - 어 가 - - 흥 아

(후렴)

1. 울 로 - - 요 레 에 - 헤 - 헤 - - - 누 게 랑 앞 고
3. 흔 번 - - 딱 리 건 허 - - - - - 백 방 - 을 씩
5. 두 드 럽 - - 시 민 허 - - - - - 골 총 - 난 다
6. 상 일 - - 에 도 어 - - - - 허 - 허 흥 스 가 있 느 냐
7. 좁 은 - - 목 에 에 - 헤 - 헤 - - - 베 락 - 치 듯
9. 흔 착 - - 가 달 에 - 헤 - 헤 - - - 할 우 터 레 들 르 명
11. 우 는 - - 애 기 에 - 헤 - 헤 - - - 것 을 - 준 들

(후렴)

2. 설 운 - - 정 애 - 앞 일 - 러 라
4. 두 번 - - 딱 리 - 건 천 방 - 을 씩
6. 막 를 - - 막 를 - - 막 르 를 주 라
8. 너 른 - - 목 에 - 번 개 - 치 듯
10. 요 동 - - 산 을 - 때 리 고 나 가
12. 양 굶 - - 잡 앙 - 제 친 - 듯 허 라

(6절만) (후렴)

6. 생 국 - - 이 여 - 진 국 - - 이 여

(마지막 후렴)

어 야 - 도 하 야 - 어 - 가 흥 아 - - - 어 야 - 도 -

도깨질소리

(후렴) 어야도 하야 어가 훙아

1. 올로 요레 에헤헤 누게랑 앓고 (후렴)
2. 설운 정애 앞일러라 (후렴)
3. 한 번 딱리건 백 방울씩 (후렴)
4. 두 번 딱리건 천 방울씩(후렴)
5. 두드럼시민 골총 난다 (후렴)
6. 상일에도 어허허 호스가 있느냐 므를 므를 므르를 주라
생국이여 진국이여 (후렴)
7. 좁은목에 에헤헤 벼락치듯 (후렴)
8. 너른목에 번개치듯 (후렴)
9. 한착 가달 에헤헤할 우터레 들르멍 (후렴)
10. 요동산을 때리고 나가자 (후렴)
11. 우는 애기 에헤헤 젓을 준들 (후렴)
12. 양긱 잡앙 제친 듯 허라 (후렴)

마당질소리

(후렴) 어야도 하야 어가 훙아

1. 올로 요리로 에헤헤 누구는 앓고 (후렴)
2. 서러운 정애 앞이더라 (후렴)
3. 한 번 때리건 백 알씩 (후렴)
4. 두 번 때리건 천 알씩(후렴)
5. 두들기고 있으니 골총 난다 (후렴)
6. 향일에도 허허허 호사가 있느냐 마루 마루 마루를 주라
생곡이다 진곡이다 (후렴)
7. 좁은 골목에 에헤헤 벼락 치듯 (후렴)
8. 넓은 골목에 번개 치듯 (후렴)
9. 한쪽 다리 에헤헤할 위로 들며(후렴)
10. 요 동산을 때리고 나가자 (후렴)
11. 우는 아기 에헤헤 젓을 준들 (후렴)
12. 양끝 잡아서 젓힌 듯 하라 (후렴)

도깨질소리(마당질소리)

‘마당질소리’는 곡식의 낱알을 떨기 위해서 도리깨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타작노래’, ‘도깨질소리’라고도 한다. ‘마당질소리’는 ‘밭밟는소리’, ‘김매는소리’와 함께 ‘제주농요’로 분류되어 2002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되었다.

‘도깨’는 ‘도리깨’의 제주방언으로 곡식의 낱알을 떨어내는 도구이다. 마당에 퍼놓은 멍석 위에 수확한 보리나 콩을 올려놓고 도리깨질로 타작을 할 때 부른다. 도리깨질은 주로 마당이나 밭의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당질 소리’라고 한다. 도리깨질은 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두세 사람이 주고받으며 한다. 한 사람이 앞소리를 메기면 나머지 사람들은 뒷소리로 후렴을 받는다.

사설 내용은 작업의 특성과 노동 상황 등 작업 실태를 주로 노래하며, 개인적 서정과 연정 등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 가창 방식은 되받아 부르기(同一先後唱), 메기고 받아 부르기(先後唱) 방식으로 부른다.

이 사설은 도깨질하는 동작과 힘차게 도리깨질을 하자고 독려하는 하는 내용이다. 보리는 초여름에 수확하여 타작하므로 날씨도 덥고 일도 고되지만 행동 통일을 하고 일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다.

방에 짙는 소리 (방아 짙는 소리)

문효진 채보·편보
강효주 감수

♩ = 110

(후렴) (제창)

이 여 - 이 여 - 이 여 도 방 에 - 이 어 - 이 여 - 이 여 도 방 에 - (후렴)

1. 가 시 - 오 - 름 - 강 당 장 집 에 - 두 콜 - 식 콜 로 세 글 림 서 라 - (후렴)

2. 전 싱 - 굴 인 - 이 네 몸 가 난 - 닥 콜 - 다 섯 콜 도 세 말 아 간 다 - (후렴)

3. 요 방 - 에 - 야 - 남 방 - 에 야 - 캉 캉 캉 캉 캉 지 어 나 지 라 -

4. 석 섬 - 쓸 은 - 서 말 에 즐 랑 - 서 말 - 쓸 - 은 - 서 흡 에 능 경 (후렴)

노 기 당 산 - 메 도 지 어 - 낫 저 - 식 게 - 멩 - 질 도 헤 어 - 낫 저 -

5. 득 리 - 손 당 - - 큰 애 기 덜 은 - 가 축 - 감 티 만 돌 러 - 썬 피 방 에 지 - 레 만

(후렴)

다 나 감 서 라 - 6. 지 세 어 멩 광 - 오 름 의 돌 은 - 둥 글 - 당 - 도 -

(후렴)

살을 메난다 - 7.전 싱 - 꽃게 - - (후렴)

날 낚은 어멍 - 부르 - 거든 - 돌아나옵서 -

방에짚는소리

(후렴) 이어 이어 이어도 방애

이어 이어 이어도 방애

1. 가시오름 강당장 집에 두콜 시콜로 세글럼서라(후렴)
2. 전싱 굿인 이네 몸 가난 니콜 다섯콜도 세맞아간다(후렴)
3. 요방애야 남방애야 캉캉캉캉 캉캉캉캉 지어나지라(후렴)
4. 석섬쌀은 서말에 꼴랑 서말쌀은 서흠에 능경
노기당산메도 지어났저 식게 멩질도 헤여났저(후렴)
5. 득리 손당 큰애기덜은 가족감티만 둘러썌
피방애 지레만 다 나감서라 (후렴)
6. 지세어멍광 오름의 돌은 둥글당도 살을메 난다(후렴)
7. 전싱 굿게 날 난 어멍 부르거든 돌아나옵서(후렴)

방아짚는소리

(후렴) 이어 이어 이어도 방아

이어 이어 이어도 방아

1. 가시오름 강당장 집에 두콜 세콜로 세 맞지 않더라(후렴)
2. 전생 굿은 이네 몸 가니까 네콜 다섯콜도 세 맞아간다(후렴)
3. 요 방아야 나무방아야 캉캉캉캉 캉캉캉캉 짚어나져라(후렴)
4. 석 섬 쌀은 서 말에 갈아서 서 말 쌀은 서 흠에 골라
노기당산메도 지었었다 제사 멩절도 했었다(후렴)
5. 교래 송당 큰애기들은 가족감투만 둘러써서
피방아 짚으러만 다 나가고 있더라(후렴)
6. 지어미와 오름의 돌은 구르다가도 살 방도가 난다(후렴)
7. 전싱 굿게 날 낳은 어머니 부르거든 돌아오십시오(후렴)

방에 짚는 소리(방아 짚는 소리)

‘방아 짚는 소리’는 절구를 이용해 곡식을 짚거나 가루를 빻을 때 부르는 노래이다. ‘방아노래’, ‘방에 놀레’, ‘남방에 짚는 소리’라고도 한다. ‘방아노래’는 ‘맷돌노래’와 함께 제주도 노동요의 대표격이다. 사실로 보아 노동요 가운데 압도적으로 그 수요가 많고 문학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 제주도는 밭농사가 위주이기 때문에 지난날에는 주요곡물인 조·보리 및 잡곡을 삶고, 찜고, 빻는 맷돌질과 방아질이 부녀자들의 큰 일거리였다. 사실은 대부분 ‘맷돌노래’의 사실과 교섭 양상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내용은 방아 짚는 작업 실태와 개인적 서정이 주를 이룬다. 나날의 삶에서 부딪치는 고달픔과 어려움, 외로움과 서러움을 노래하는가 하면 자립정신으로 굳건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실정을 그리고 시집살이의 힘듦을 노래한다. 가창 방식은 주로 메기고 받아 부르기(先後唱)나 주고받아 부르기(交換唱) 방식으로 부른다.

이 사실에 나오는 가시오름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表善面) 가시리(加時里)의 옛 이름이다. 강당장(康當長)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살았다는 대부호인데, 지나친 물욕(物慾) 탓으로 풍수에 밝은 스님을 박대했다가 온갖 흉사(凶事)와 이변이 일어나서 삼시간에 망하게 되었다는 전설의 주인공으로 ‘맷돌노래’와 ‘방아노래’에서 많이 불리는 인물이다.

제주도 특유의 ‘남방에’를 짚음에 있어서 ‘콜’이란 방아 짚는 사람들의 절굿공이의 수요의 단위이다. 두 사람이 짚으면 ‘두콜방에’, 세 사람이 짚으면 ‘식콜방에’, 네 사람이 짚으면 ‘늬콜방에’라 한다.

‘새글럼서라’는 두 사람 이상이 절굿공이를 들고 ‘남방에’를 짚을 경우, 그 사이가 어긋나서 어울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 이상이 ‘남방에’를 둘러싸고 짚는 경우, 그 짚는 운율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직역하면 ‘사이가 안 맞고 있더라.’이다

멜후리는소리

문효진 채보. 편보
강호주 감수

♩ = 50

(선창) (제창)

어 허 - 야 뒤 - - 야 어 허 - 야 뒤 - - 야

(후렴)

어 허 - 야 뒤 - - 야

1. 당 선 - 에 선 - - - 멜 발 - 을 보 고 어 허 - 야 뒤 - - 야
2. 망 선 - 에 선 - - - 후 림 을 - - 논 다
3. 서 캐 - - 코 랑 - - 서 에 - 코 틀 로
4. 동 캐 - - 코 랑 - - 은 금 - 은 여 로
5. 닷 배 - - 에 선 - - 진 - - 을 재 왕
6. 사 서 - - 안 골 - - 추 저 안 - 골 궤 기
7. 흔 - - - 물 로 - - 멜 - - 나 가 듯
8. 용 갱 - 이 와 당 - 에 다 물 - 렸 구 나
9. 그 물 - - 코 가 - - 삼 천 - 코 라 도
10. 배 사 람 - - 배 가 - - 주 - - 장 이 여
11. 이 사 람 - - 델 아 - - 요 멜 - - 델 거 리 자
12. 풍 년 - 이 왔 구 - 나 돈 풍 - 년 왔 저
13. 선 진 - - 이 랑 - - 앞 퀘 - 기 놓 고
14. 후 진 - - 이 랑 - - 뒤 퀘 - 기 논 다
15. 이 사 - 람 델 아 - - 우 터 레 델 들 르 라
16. 만 선 - 초 목 이 - - 피 - - 었 구 나
17. 기 - - 를 돌 아 - - 꿈 - - - 으 라
18. 어 기 - 야 뒤 야 - - 멜 - - 잡 으 라
19. 요 궤 - - 기 를 - - 잡 - - 아 놓 고
20. 어 기 - 야 뒤 야 - - 상 산 이 로 구 나

멜후리는소리

(후렴) 어허야 뒤야

1. 당선에선 멜발을 보고
2. 망선에선 후림을 논다
3. 서캐코랑 서에코틀로
4. 동캐코랑은 은금은여로
5. 닷배에선 진을 재왕
6. 사서 안골 추저 안골 퀴기
7. 훈물로 멜 나가듯
8. 용갱이와당에 다 몰렸구나
9. 그물코가 삼천코라도
10. 베릿배가 주장이여
11. 이 사람덜아 요 멜덜 거리자
12. 풍년이 왔구나 돈풍년 왔저
13. 선진이랑 앞퀘기 놓고
14. 후진이랑 뒷퀘기 논다
15. 이 사람덜아 웃터레덜 들르라
16. 만선 초목이 피었구나
17. 기를 돌아 꼽으라
18. 어기야 뒤야 멜 잡으라
19. 요 퀴기를 잡아 놓고
20. 어기야 뒤야 상산이로구나

멸치후리는소리

(후렴) 어허야 뒤야

1. 당선에선 멸치 떼를 보고 어허야 뒤야
2. 망선에선 후리그물을 놓는다
3. 서쪽포구 코는 서쪽 코로
4. 동쪽포구 코는 은금은여로
5. 닷배에선 진을 지우고
6. 사서 바다 추자 바다 고기
7. 한무날에 멸치 나가듯
8. 용갱이바다에 다 몰렸구나
9. 그물코가 삼천 코여도
10. 버리배가 주장이다
11. 이 사람들아 요 멸치들 뜨자
12. 풍년이 왔구나 돈 풍년 왔다
13. 선진은 앞의 고기 놓고
14. 후진은 뒤의 고기 놓는다
15. 이 사람들아 위로들 들어라
16. 만선 초목이 피었구나
17. 기를 달아 꽃아라
18. 어기야 뒤야 멸치 잡아라
19. 요 고기를 잡아 놓고
20. 어기야 뒤야 상산이로구나

멜후리는소리(멸치후리는소리)

‘멸치후리는소리’는 백사장이 발달한 해안에서 여럿이 그물을 끌어당기고 멸치를 후리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멜후리는소리’, ‘멜후림소리’라고도 한다. ‘멸치후리는소리’는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었다.

‘멜’은 ‘멸치’의 제주방언이다. 멸치 후리기란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 긴 그물로 멸치떼를 후려서 물고 오면 바닷가에서 마을 사람들이 그물 양 끝을 끌어당기며 멸치를 후리는 집단 어로 작업이다. ‘멸치 후리는 소리’는 그물을 잡아당겨 멸치를 후릴 때 동작을 일치시키고 힘을 돋우기 위해 부른다. 멸치를 후릴 때 그물을 잡아당기는 동작과 밀착되어 있어 가락이 역동적이다.

사설 내용은 대부분 멸치 후리는 작업 실태와 비교적 의미 있는 사설이 길게 이어지고 사설의 고정도는 높은 편이다. 가창 방식은 후리질이 대개 반복적인 동작이어서, 대체로 한 사람이 앞소리를 메기고 여럿이 후렴을 받는 선후창 방식이다. 노래의 속도는 대체로 보통 빠르기로 가창하지만, 그물 당기는 동작과 연결되어 조금씩 변한다. 선소리와 후렴의 선율은 서로 다르다.

이 사설은 멸치 후리는 작업 과정을 노래하고 있다. 멸치 떼를 찾고 그물을 치고 멸치를 잡은 만선의 기쁨을 노래했다.

출비는소리(꿀베는소리)

문효진 채보·편보
강효주 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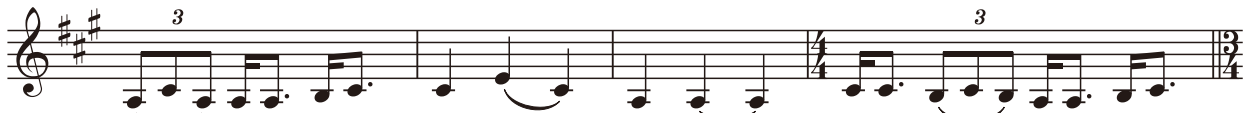
♩ = 50



1. 입 추팔월 - 은 돌아 나 - 오 난 하늬 바람 가을 바람 건들 건들



불어 나 - 오 난 출도 비어 야 험거로 - 구나 산법 닦은 내허 -



미 - 가져 당 - 모 착 - 모 착 - 비어 나 - - 눅져 보자



(후렴) 오 - 오 오 - 흥애 - 기로 - 구나



2. 바람아 - 바람아 - 불테면 - 하늬 - 바람 - 으로 - 건들건들



불어 나 - 오 라 오늘 - 비는 - 출은 자골 씨도 감실 - 감실

(후렴)



잘도 몰라 가는 - 구나 3. 추석 바람은 살랑 살랑 건들 건들 불어 나 - 오 난



휘휘청 청 - 늘어진 - 가 지도 - 허스가 되는구나 이시절은 당허난 -

(후렴)

백 초 도 허 스 로 - 구 나 4. 이 출 저 출 휘 야 잡 구 청 출 비 는 - 산 법 님 은

내 호 미 - - 더 라 훈 소 리 - 에 두 못 반 씩 삭 삭 비 어 - 나 - -

(후렴)

눅 경 물 르 왔 당 몽 생 이 겨 울 석 돌 먹 을 출 - 이 로 구 나

5. 삼 십 육 년 가 마 권 - 강 갈 록 - - 강 갈 록 - - 우 는 것 - - 보 난 백 로 - 팔 월 - 이

돌 아 온 - 것 ㄱ 트 다 - 먹 을 거 없 어 지 난 앞 은 떨 어 져 - 청 산 이 - - 되 고

(후렴)

꽃 은 피 어 화 산 이 - - 되 니 았 었 던 - - 나 비 새 도 날 아 가 버 리 는 - 구 나

* 조천읍 지역에서 전승되어온 '출비는소리'

출비는소리

(후렴) 오~호호 ~홍~ 홍애기로구나

- 1 입추 팔월은 돌아나 오난
하늬바람 가을바람 건들건들 불어나오난
출도 비어야 할 거로구나
산법 닦은 내 호미 가져당 모착모착
비어나 녹저 보자 (후렴)
- 2 바람아 바람아 불테면
하늬바람으로 건들건들 불어나오라
오늘 비는 출은 자골씨도
감실감실 잘도 몰라가는구나 (후렴)
- 3 추석바람은 사랑살랑 건들건들 불어나오난
휘휘청청 늘어진 가지도 허스가 되는구나
이 시절은 당허난 백초도 허스로구나 (후렴)
- 4 이 출 저 출 휘야 잡구 청출 비는 산법 닦은 내 호미더라
흔소리에 두 뭇반씩 삭삭 비어나 녹정 물러왔당
몽생이 겨울 석 돌 먹을 출이로구나 (후렴)
- 5 삼십육년 가마권 강갈록 강갈록 우는 건 보난
백로팔월이 돌아온 것 ㄱ트다 먹을거 없어지난
앞은 떨어져 청산이 되고 꽃은 피어 화산이 되니
앳었던 나비새도 날아가 버리는구나 (후렴)

꿀베는소리

(후렴) 오~호호 ~홍 홍애기로구나

- 1 입추 팔월은 돌아오니까
하늬바람 가을바람 건들건들 불어오니까
꿀도 베어야 할 거로구나
산법 같은 내 낫 가져다가 싹둑싹둑
베어서 눅혀 보자 (후렴)
- 2 바람아 바람아 불 테면
하늬바람으로 건들건들 불어나오라
오늘 베는 꿀은 차골씨도
감실감실 잘도 말라가는구나 (후렴)
- 3 추석 바람은 사랑살랑 건들건들 불어오니까
휘휘청청 늘어진 가지도 허사가 되는구나
이 시절은 당하니 백초도 허사로구나 (후렴)
- 4 이 꿀 저 꿀 휘어잡고 푸른 꿀 베는 산법 같은 내 낫이더라
한 소리에 두 뭇 반씩 삭삭 베어 눅혀서 말렸다가
망아지 겨울 석 달 먹을 꿀이로구나 (후렴)
- 5 삼십육년 가마권 강갈록 강갈록 우는 건 보니까
백로 팔월이 돌아온 것 같다 먹을거리 없어지니
앞은 떨어져 청산이 되고 꽃은 피어 화산이 되니
앳었던 나비도 날아가 버리는구나 (후렴)

출비는소리(꿀베는소리)

‘꿀베는소리’는 늦가을에 중산간 지역에 있는 꿀밭에서 겨울에 소나 말에게 먹일 꿀을 낫으로 베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출비는소리’, ‘출비는홍애기’라고도 한다.

‘출’은 소나 말에게 먹이는 풀인 ‘꿀’의 제주방언이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말이나 소를 중산간 지역에 풀어 놓고 키우고 겨울에는 말과 소를 집으로 몰고 와서 길렀다.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일 ‘꿀’이 필요한 이유다. 팔월 보름 추석 경부터 꿀을 베어 선선한 가을바람에 꿀을 말렸다. 넓은 밭에서 꿀 베기를 할 때는 약 15~20명 정도가 모여서 일을 했다. 대체로 남원·표선 쪽에서는 ‘낫(긴 낫)’을 사용하고 다른 지역에선 ‘호미(작은 낫)’을 사용했다. 긴 낫은 낫자루가 2미터 30센티미터에서 3미터 정도가 되며 낫의 날 길이만도 1미터나 된다.

사설 내용은 주로 꿀 베는 작업 실태를 노래하지만 생활 감정도 노래한다. 가창 방식은 주로 혼자 부르기(獨唱) 방식으로 부르지만 메기고받아 부르기(先後唱)나 주고받아 부르기(交換唱) 방식으로 부르기도 부른다.

이 사설은 입추가 되어 가을바람 불어오니 겨울 석 달 동안 말과 소에게 먹일 꿀을 베어 말리자고 노래하고 있다. 꿀 베는 상황과 작업 실태를 노래했다.

출비는소리(꿀베는소리)

문호진 채보·편보
강효주 감수

♩. = 80

1. 가을 바람 이 건드 령 허 난 출도 비 엄 직 하 구 나

(후렴) 어으어어허 어—허 — — 어 — — — 허 — — — 흥애기로 구나 — (제창)

2. 비 소 금 ㄱ 튼 내 호 미 덜 아 물 착 물 착 비 어 나 진 다 (후렴)

3. 부 름 아 부 름 아 — 불 테 면 — 하 님 부 름 으 로 불 어 나 오 라 (후렴)

4. 오 늘 비 는 출 은 잘 도 무 른 다 — 두 어 랑 아 (후렴)

5. 부 름 소 리 에 자 골 씨 는 — 감 실 감 실 잘 물 라 나 간 다 (후렴)

6. 비 수 ㄱ 튼 내 호 미 거 정 — 잡 아 녹 저 근 에 (후렴)

7. 하 님 부 름 에 물 릫 왓 당 — 저 슬 들 민 므 시 즐 출 이 여

(후렴)



8.선 들 선 들 추 석 브 림 휘 휘 청 청 늘 어 진 가 지 덜

(후렴)



9.이 시 절 은 당 허 난 - 백 초 - 도 허 사 로 다

* 구좌읍 지역에서 전승되어온 '출비는소리'

출비는소리

(후렴) 어으어어허~어~허~ 어~ 허~ 흥애기로구나

- 1 가을브름이 건드렁ħ난 출도 비엄직허구나
- 2 비소금 ㄱ튼 내 호미덜아 물착물착 비어나진다.
- 3 브름아 브름아 불 테면 하늬브름으로 불어나오라
- 4 오늘 비는 출은 잘도 마른다 두어랑아
- 5 브름 소리에 자골 씨는 감실감실 잘 몰라나간다
- 6 비수 ㄱ튼 내 호미 거정 잡아 늑저근에
- 7 하늬브름에 몰락왓당 저슬들민 ㅁ시 줄 출이어
- 8 선들선들 추석 브름 휘휘청청 늘어진 가지덜
- 9 이 시절은 당ħ난 백초도 허사로다

꿀베는소리

(후렴) 어으어어허~어~허~ 흥애기로구나

- 1 가을바람이 선들하니 꿀도 벨듯허구나
- 2 비소금 같은 내 낫들아 싹둑싹둑 베어진다.
- 3 바람아 바람아 불 테면 하늬바람으로 불어오라
- 4 오늘 베는 꿀은 잘도 마른다 두어랑아
- 5 바람 소리에 차풀 씨는 감실감실 잘 말라간다
- 6 비수 같은 내 낫 가져서 잡아 늑혀서
- 7 하늬바람에 말렸다가 겨울 들면 마소 줄 꿀이다
- 8 선들선들 추석 보름 휘휘청청 늘어진 가지들
- 9 이 시절은 당ħ니 백초도 허사로다

출비는소리(꿀베는소리)

‘꿀베는소리’는 늦가을에 중산간 지역에 있는 꿀밭에서 겨울에 소나 말에게 먹일 꿀을 낫으로 베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출비는소리’, ‘출 비는 흥애기’라고도 한다.

‘출’은 소나 말에게 먹이는 풀인 ‘꿀’의 제주방언이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말이나 소를 중산간 지역에 풀어 놓고 키우고 겨울에는 말과 소를 집으로 몰고 와서 길렀다.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일 ‘꿀’이 필요한 이유다. 팔월 보름 추석 경부터 꿀을 베어 선선한 가을바람에 꿀을 말렸다. 넓은 밭에서 꿀 베기를 할 때는 약 15~20명 정도가 모여서 일을 했다. 대체로 남원·표선 쪽에서는 ‘낫(긴 낫)’을 사용하고 다른 지역에선 ‘호미(작은 낫)’을 사용했다. 긴 낫은 낫자루가 2미터 30센티미터에서 3미터 정도가 되며 낫의 날 길이만도 1미터나 된다.

사설 내용은 주로 꿀 베는 작업 실태를 노래하지만 생활 감정도 노래한다. 가창 방식은 주로 혼자 부르기(獨唱) 방식으로 부르지만 메기고받아 부르기(先後唱)나 주고받아 부르기(交換唱) 방식으로도 부른다.

이 사설은 입추가 되어 가을바람 불어오니 겨울 석 달 동안 말과 소에게 먹일 꿀을 베어 말리자고 노래하고 있다. 꿀 베는 상황과 작업 실태를 노래했다.

채보 : 문효진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뉴미디어음악학과 박사과정 수료
멜버른 대학 음악학과 학사 / 준석사(honours) / 석사
이어도사나 피아노 콘체르토 등 다수 작곡 및 해외페스티벌 참여
음반 '영혼은 바람이 되어' 외 다수 발매
수상 문체부 장관상 우수상(지역양성기획)


감수 : 강효주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한국음악과 조교수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경기12잡가) 이수자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요협회 이사
사단법인 한국정악원 이사
(전)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성악 수석, 부수석

해설 : 이성훈

문학박사
전 송실대 겸임교수
저서 『해녀의 삶과 그 노래』, 『제주도 해녀노젓는소리의 본토 전승양상에 관한 조사·연구』,
『해녀노젓는소리 연구』, 『해녀연구총서』, 『Culture of Jeju Haenyeo(Women Divers)』

**제주의 나라
신화의 섬에
흔적
을
찾아**
제주일노래
악보집

발행일 2021년 10월 24일
발행처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발행인 고영림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장
주최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주관 제주일노래상설공연집행위원회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